

영광 한센인 정착촌 '축사 악취 갈등' 해결책 마련

유철환 권익위원장 현장 찾아

5개 돈사 폐업·공간정비 조정안 군, 방풍벽 설치 등 악취 저감 노력

영광군 한센인 정착마을인 영민마을(영민농원)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축사 악취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영광군은 지난 3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묘량면 덕흥리 영민마을을 찾아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축사 악취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영광군과 국민권익위 등은 지난해 6월 영민농원 일대 주민들로부터 축사 악취 민원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영광군에 제기된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은 21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마을 5개 돈사를 폐업하고 내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는 내용의 조정서를 마련했다. 영광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축사 소유주가 지닌 땅과 건축물을 보살필 계획이다.

돈사가 있는 토지를 지닌 광주구천교회유지재단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축사 농가 3곳에 한시적으로 땅을 빌려줄 것을 권



유철환(왼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장과 영광군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영민마을을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마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했다.

축사 농가는 폐업 때까지 분뇨와 사체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악취를 줄이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축사 환기구 주변에 방풍 벽을 설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영민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사는 모두 5곳이다. 축사 경력은 짧게는 8년, 길게는 23년에 달한다.

이들 축사는 모두 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영민농원 복지관 1개 동과 양로시설 4개 동을 포함한 거주지 16개 동(24명·16세대 거주)은 5개 축사에 둘러싸여 악취를 겪어왔다.

영민농원을 기반으로 한 영민마을은 1974년 한센인들이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도움으로 동지를 둔 정착촌이다.

이들은 정부의 한센인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소외된 채 떠돌거나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퇴소한 뒤 영민마을에 터를 잡았다.

영민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현재 평균 나이 80대로 대부분 폐업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한센인들이 이곳에 생활할 수 있도록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고, 영광군은 마을 안에 주택을 건립해 무상 거주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광주구천교회유지재단이 외부 양돈 사업자들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2년 단위·최장 15년)을 맺어 토지 사용을 승낙해주면서 축사 악취 문제는 심화했다.

한편 이날 현장 조정 회의에는 유철환 위원장과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부군수), 광주구천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영민농원 대표, 축사 농가 대표 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유 위원장 등은 주민들과 면담을 벌여 마을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영민농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협약을 맺었다.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는 "이번 조정 회의가 영민농원 축사악취 갈등 문제의 해결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영광군은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해경, 물놀이철 맞아 '구명조끼 생활화' 캠페인

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벨트 착용률이 83%에 이르는 데 비해 구명조끼 착용률이 14%에 그치는 구명조끼 생활화를 위해 추진됐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이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교육기관 등 공공장소 출입구에 구명조끼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캠페인에 들어갔다.

구명조끼 스티커는 '바다에선 구명조끼! 채워주면 안전해요!'의 의미와 함께 자동출입문이 닫히면서 구명조끼 벨트를 손으로 채우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시인성을 높였다.

해경은 국민들이 생활을 위해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3사(롯데맥스, 이마트, 홈플러스)와 목포시청·목포 해상케이블카·MC에너지(옛 목포도시가스)·여객선터미널 및 관내 초등학교 2개소 등에 설치했다.

앞으로 해·수산 종사자 등 바다 가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사라져가는 해녀문화 회복

신안군 해녀육성·정착 지원

신안군이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안군은 오는 9월 제주시에서 열리는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에 참가해 협회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신안군에서는 2010년대 100여 명 이상의 해녀가 활동했지만, 현재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흑산도 등에서 소수가 명맥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해녀 어업은 호흡 장치 없이 잠수복과 물안경 등 간단한 도구만으로 수심 10m까지 잠수해 전복, 성게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해녀들은 한번 잠수할 때마다 1분 이상 숨을 참으며 하루 최대 7시간까지 연 90일 정도 물질을 한다.

우리나라 해녀 문화는 제주 해녀 문화를 대표로 2015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등에 등재됐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어업 분야 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신안군은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맞춰 현재까지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해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해녀협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추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녀 문화 계승·보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해녀는 과거 먼바다 섬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섬 어인들의 주도적 어업활동을 대표하는 전통어업"이라며 "신안군은 해녀(나잡) 어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해녀 육성·정착에 힘써 해녀 문화를 보전·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암군 지역 초등학생들이 농민과 함께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탄소중립 함께 배우고 실천해요

영암군 '농업학교' 열어

영암군이 미래세대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2024년 탄소중립농업학교'를 마련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기후위기시대 사람과 생태의 조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과 초·중·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8~10월 진행되며 필수 이론 2시간, 선택 체험 2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이론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야기 독후

활동, 영상 시청, 기후위기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기후위기 문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방법을 알린다.

체험은 로컬, 푸드테라피를 통한 체험활동과 농부와 함께하는 유기농생태마을 투어로 농업·농촌 탄소중립을 경험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많은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완도군(군수 신우철·왼쪽 네 번째)과 완도해양경찰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기관·단체 잇단 상생협약

해경·전남농협 등 직원복지 협력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는 기관·사회단체가 늘면서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완도해양경찰서, 27일에는 전남농협(전남지역본부장 박종택)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해양치유산업 홍보, 소속 직원 복

지 증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행사 등 장소 제공 등이다. 앞서 전남도교육청, 현대삼호중공업, 아진산업,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시군구 단위 노조, 전남 광역치매센터, 목포해상대 등과도 업무 협약을 했다.

군은 업무 협약 기관·사회 단체를 늘려 상생 협력하고 홍보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해양치유센터는 3인 이상 가족은 30%, 전남도민과 10인 이상 단체는 20%,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1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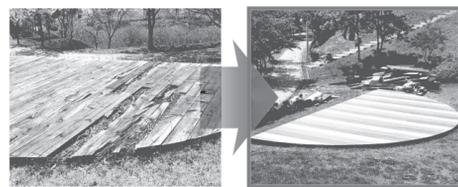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